

대구광역시회

김주환 회장

에너지 자족 신도시 활성화로 제2의 도약 꿈꾸는 대구시회

전국 시·도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김주환 대구시회 회장으로부터 대구시회의 사업주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유머와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김주환 회장은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연임 중이며 20년째 침체에 빠진 대구시의 제2 도약을 위해 회원사에게 전국 시장을 상대로 적극 개척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편집자 주]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재임되었습니다.
재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섬유산업이 꽃피던 70~80년대 대구 도심은 서울 명동에 견줄만 했지만 이제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섬유산업이 쇠퇴한 후 자동차·전자 등의 산업을 유치하지 못해 대구는 20년째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지자체 중 꼴찌이며 20~30대가 일자리를 찾아서 매년 1만명씩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대구의 가장 큰 관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의 제2도약을 위해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면 모든 투자비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투자 분야는 소프트웨어·물산업·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기기 등 네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것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2000년 대구를 친환경도시인 '솔라시티'[대구테크노폴리스(726만㎡)]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주거, 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신도시인 대구테크노폴리스는 2020년까지 태양광·지열·연료전지로 도시가 쓸 전기를 100%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국내 첫 에너지 자족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시공하고 있는 기계설비는 앞으로 대구에서 일거리가 크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기계설비 매출액은 강원, 전북 다음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를 차지할만큼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난 해 대구시회 기성실적은 4,5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1,600억원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3,000억원은 외지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구지역에 건축물 또는 생산시설 투자가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대구시장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대구 지역 업체가 외지에 나가 돈을 벌어서 대구 지역에서 활용할 것 인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권의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 보다는 야생마가 되어 전국을 시장으로 삼을 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체가 각 지역에서 60~70%를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우리 것을 지키겠다고 막으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가 타 지역에서도 똑같은 제약조건이 되기 때문이지요. 특히 대구지역은 매출이 워낙 적다 보니 지역에 국한되다 보면 모두 자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사에게도 대구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히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일찌감치 전국을 상대로 개척했기에 지금은 대구지역 일은 하나 밖에 없고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장 재임기간 동안 대구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회원사에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수주문제로 회원사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좁은 바닥에서 수주하기도 힘든데 저까지 들어가서 풍비박산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재임에 영향을 준지도 모르겠어요(웃음).

8대 때는 협회와 대구시회의 업무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9대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회원사와 대구지역 발전을 위해 심혈을 쏟을 계획입니다. 사실 지난 8대 때 일을 해보니 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회원사의 권익향상 등 큰 줄기의 일은 본회에서 하고 지방 시도회는 지역발전에 힘을 쏟는 정도로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본회에 갈 때마다 지방 시도회에 숙제도 주고 심부름도 시키는 등 할 일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리발주 법제화를 위해 여러 모로 애쓸 때 대구시회에서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업계의 의견을 설명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역할분담을 하면 서로가 윈윈할 것이며 보람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적정공사비 확보에 주력

대구시회는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분리발주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지자체 조례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지역 기계설비건설업체 역량 강화

대구지역 회원사의 경쟁력 및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술역량 강화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협회가 창립되었던 20여년 전의 환경과 지금은 매우 달라졌지만 아직도 기계설비가 뭐하는 지도, 협회의 존재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와 협회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세미나는 관·학·산 간의 연대감 조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세미나를 적극 후원하고 대구광역시 기계직 공무원, 대한설비공학회 대구·경북지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 영남학회, 대구시 교육청, LH공사를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 등 대구지역 기계설비 관련 관·산·학이 모두 모여 화합과 협력의 한마당을 만들다 보면 대구지역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를 부양시킬 핵심 사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강의를 통해 좀더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미루다 보니 개최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내년엔 좀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회원사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4대 보험을 비롯하여 건설관련 법령 등 노무 및 법령 강습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확보 노력

보통 노임이 오르면 생산성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건설업계는 노임이 30% 이상 오르면 생산성은 오히려 30% 떨어지는 역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건설업계의 임금이 사실상 낮다 보니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아서 인력수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금인상과 고령화는 기업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의 제도로 인해 공사비가 한없이 낮아지다 보니 기업이 기술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회는 영진전문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주문식 교육을 연계해 양질의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공업대학교와도 산학협력을 통해 회원사에 취업 및 실습 기회를 줌으로써 기술인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대구시회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일대, 대구카톨릭대, 대구공업대 등 대구지역 기계설비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기계설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건설관련 현안 문제 해결 등 건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와 풍성한 삶,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천만원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와 더불어 발전하는 협회

대구시회는 전 회원사가 동참의식을 갖도록 봄, 가을에 각각 체력단련대회와 산행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두 번 일상을 떠나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유대를 돈독히 함은 물론 대구시회 및 본회의 사업추진 현황을 전 회원사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면서 회원사와 더불어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호남 기계설비 교류 확대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지역감정이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사실 전국의 회원사들이 만나면 지역감정을 느낄 수 없는데 매스컴에서는 여전히 지역감정을 얘기합니다. 대구시회는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우리부터 노력해 보고자 호남지역 협회 및 업체 간의 간담회 등 각종행사 교류를 협의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 영·호남 간 기계설비 분야 교류가 확대되면 지역감정을 없애는 전도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회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에 앞장

이밖에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건설공사 관급자재 물량축소,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 신설 등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구지역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 당부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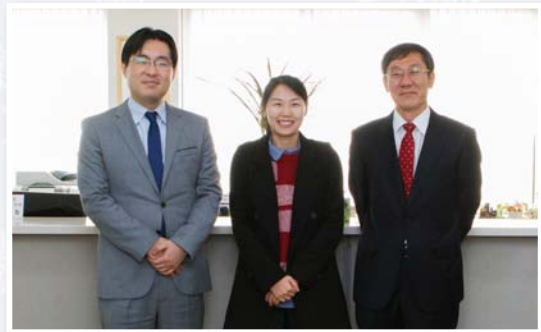
요즘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을 만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정부가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나찰제, 실적공사비제도, 표준품셈 등 공사원가를 깎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은 무조건 최저로, 품질은 무조건 최고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가격이 낮은데 어떻게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반면 노동관련 법은 갈수록 더욱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서 일한 기능공이 최근 직업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산재임에도 과거 정부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새정부 들어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팔과 다리 힘을 이용해서 일해야 하는 건설업 특성상 나이들면 자연히 퇴행현상으로 팔다리를 잘 못쓰어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된다면 전국에 몇십만명의 기능인들이 앞으로 산재 소송을 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수천만원이 들더라도 항소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얼마 전부터 대립과 현대산업개발이 먼저 시범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휴된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노임 및 자재, 장비대금이 각각 분리,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한 현장당 몇십~몇백명의 노임을 각각 개인 통장으로 입금함)가 발생되는데 그 부담은 전문건설업체가 전부 떠안아야 합니다. 말로는 수수료를 첨부해서 넣으라고 하는데 정작 서류 어디에도 첨부항목이 없습니다. 또한 20

~30개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성금을 취합해서 그때 그때 서류를 넣어야 하는 전담직원이 필요하게 되죠. 원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비까지 전가되면 우리 업계는 살아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자재, 장비를 제공하는 중개상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정부가 말로는 상생협력 하라고 외치는데 과연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으며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잘 견뎌내려면 무엇보다도 저가수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며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사회사무처 직원들(오른쪽부터 박창한 사무처장, 박선희 주임, 조희원 대리)

김주환 회장은

- 1961년생
- (주)백산이엔씨 대표이사(現)
- 대구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
- 경일대학교 기계과 졸업
-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신아설비설계연구소, 동남설비설계연구소 근무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제8대 회장 역임
- 대구상공회의소 의원(現)
-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위원(現)
- 대구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원(現)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의원(現)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대구광역시장 표창
-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
- 대구지방경찰청장 감사패
-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공로패
- 동대구세무서장 표창